

# 이순신의 전사와 이설(異說)에 대하여

이내원

이순신 송모인

2005년 12월 16일은 이순신 순국 407주기가 되는 뜻 깊은 날이다.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종영과 더불어 이순신 열풍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지극히 숭고한 분의 죽음에 대해 회자되는 다양한 이설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순신의 죽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세가지 설이 엇갈리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전사, 전사를 가장한 자살설, 전사하지 않고 16년 동안 은둔 생활 하다가 자연사 했다는 은둔설 등이 그것이다.

먼저 자살설의 근거를 들어보면

첫째, 유형(柳珩)의 행장이다. 유형은 이순신 막하의 해남현감으로 이순신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부장으로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에서는 총상을 여섯 군데나 입고도 살아남아 제 5대 통제사를 지낸 이 인데 “통제사 이공(李公)이 일찍이 마음속을 토로하면서 말하기를, 자고로 대장이 조금이라도 공을 이룰 마음을 갖는다면 대개는 몸을 보전하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적이 물러가는 그 날에 죽는다면 아무런 유감도 없을 것이다. (吾死於賊退之日 則可無憾矣)” 라고 쓴 기록.

둘째, 명나라 도독 진린의 이통제를 제사하는 글(祭李統制文)에서 “평시에 사람을 대하면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번 죽는 일만 남았노라 (辱國之夫 只欠一死)’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무엇 때문에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야 하시던고, 어허 통제여!” 라고 한 부분.

셋째, 숙종때 대제학, 대사간, 판서 등을 지낸 서하 이민서(李敏敍)가 의병장 김덕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쓴 「김충장공유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순신도 싸움이 한창일 때 갑옷을 벗고 스스로 탄환에 맞아 죽었으니(李舜臣方戰免冑 自中丸以死)” 라고 기술한 부분.

넷째, 이순신 자신의 정유일기중 백의종군 노정에서 모친상을 당했을 때와 명량대첩 직후 막내 아들 면이 아산 본가에 쳐들어온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 겹친 불운에 극도의 비탄에 빠져 기록한 “다만 빨리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4월 16일), “일찍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4월 19일), “...아득한 저 하늘은 어찌하여 내 사정을 살피주지 못하느고, 왜 빨리 죽지 않는가” (5월 6일),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10월 14일)등 비탄의 기록과 그 밖에 KBS드라마처럼 선조 임금과 윤두수 등 서인 세력에 의한 이순신 탄압 분위기로 보아 전쟁을 이기고 공을 세워도 필경 살아남지 못할 줄을 미리 알고 전사의 형태를 빌어 죽을 때와 죽을 곳을 정해 실천했을 것이라는 문사들의 끈질긴 심정적 정황이론 등이다.

이순신을 발탁한 영의정 유성룡은 「李統制를 슬퍼함」이라는 추모시에서 “공로 높아 참소 모함 못 면했던가/새 깃 같은 목숨이라 무얼 아끼랴” 라고 시대적 분위기를 아파했고 공보다 25살 아래인 금산군 매창 이성윤은 노량 충렬사에 헌액한 시문에서 “공로 커도 상 못 탈 것 미리 알고서/제 몸 던져 충성 뵈자 결심했던가” 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상의 네 논거를 보면 자살론자들이 이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의 행장은 공을 세우는 세상의 일반적 세태를 언급하고 자기의 희망을 슬회한 것이지 자살을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결의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진린의 제문도 국치를 당한 무장이 그 치욕을 씻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전사’ 자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이민서는 1633년에 태어나 이순신보다 88살 아래로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그곳 백성들로부터 감동적인 이순신 칭송을 듣고 스스로 그 전적지를 돌아본 뒤 설화를 채록하여 감동적인 명량대첩비를 쓴 숙종 때의 명신이지만 이순신 전몰 100여 년 후의 일로 난중일기에 명기된 적선의 수 330여 척을 500척으로 기술하는 등 자료의 실사와 고증의 부정확성을 노출하고 있다. 기록중의 ‘갑옷을 벗었다’ 는 면주는 진나라 장수 선진(先軫)의 고사 免冑先登(갑옷을 벗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선다)는 뜻으로 용기를 지칭하는 말이지 죽기 위해 갑옷을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또 육군과 같이 방탄 장비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해군처럼 조선의 수군도 갑옷을 별로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치장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넷째로 이순신의 정유일기는 목숨을 다해 충성했건만 통제사 파직, 구속, 고문, 사형의 위협, 백의종군신세, 모친사망, 막내아들 전사 등 극도의 불운이 겹친 데서 비롯된 극히 인간적인 절망과 비탄의 소리로 자살의 결의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또 혹자들은 “7년 전쟁기간 신기한 전술로서 백전백승한 명장이 하필이면 마지막 전투에서 그것도 격에 맞지 않게 몸소 북채를 들고 독전하다가 총맞아 죽었는가?” 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자살론을 거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적 기록이 말해주듯이 노량해전은 이영남, 고득장, 방덕룡, 돌격장 이언량 등 조선의 수군장수 10명과 명나라 부장 등 자룡이 전사한 가장 치열한 해전이며 이순신의 수군은 생각만큼 정예화된 수군이 아니어서 전투 수행을 일임할 정도가 못되어 이순신이 이미 초기 2차 해전인 사천해전에서는 병사들과 함께 활을 쏘다가 어깨에 총을 맞아 상처가 짓물러 고생한 전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위에 오래 눈병을 앓아 시력약화로 조총을 겨냥하는 왜군을 감지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진린에게 토로한 편범불반(片帆不返), 우리나라를 침입한 왜놈은 비록 한 조각 작은 배라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아 마지막 최대 전과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분전했을 가능성이 여실하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고 아들 회와 조카 완, 몸종 금이와 몇몇 측근의 비밀계획에 의해 전사를 가장해, 살아서 잠적하여 은둔 생활을 하다가 16년 뒤에 자연사 했을 것이라는 서울대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의 주장이다.

이 은둔설의 근거는 첫째, 가족 이외에 진린등 시신을 직접 보고 확인한 기록이 없는 점, 둘째 이순신의 묘소는 처음 금성산에 비석없이 16년간 조성돼 있다가 16년 뒤에 현재의 어라산으로 이장했는데 덕수 이씨 문종 족보에는 이장의 기록이 없는 점, 셋째, 유형은 1615년 2월에 죽었는데 죽기 전 평소 가족에게 “李公(순신)의 무덤에 碑를 세우지 않는다면, 내 무덤에는 碑를 세우지 말라” 고 말했다는 유형 행장의 기록으로 보아 유형은 이순신 가족과의 교감으로 이순신의 은둔사실을 알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며 16년 뒤 어라산에 이장할 때가 이순신의 자연사 한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넷째, 이순신 전사 당시 주위에 있었다는 사람과 대신 독전을 했다는 사람이 기록마다 여섯 가지로 크게 엇갈리는 이유가 허구적 전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상황의 구성이나 연결로 무리가 없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이순신의 단순 강직한 성품과 그의 天命사상을 도외시한 결함이 있다. 즉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의 출전 명령을 거부한

그가 구차하게 잔재주를 부려 더 살기를 꾀했을 리 없고 그가 죽음의 위험에 빠질 때 마다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죽게 되면 죽을 뿐이다.” 라고 일관된 사생관을 유지했겠는가?

남원출신 진사 의병장 조경남은 이순신 막하에서 예교성 봉쇄작전의 선봉장으로 참여하여 「난중잡록」이라는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높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순신의 전사 장면을 “...날이 이미 밝았다. 순신이 친히 북채를 잡고 먼저 올라가 추격하며 죽이는데, 적의 포병이 배꼬리에 엮드렸다가 이순신을 향해 일제히 쏘아 이순신은 총알에 맞고 인사 불성이 되었다” 라고 사실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해군 충무공 수련원 연구실장으로 이순신 연구에 정진해온 최두환 박사는 그의 역작 「충무공 이순신 전집」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사생관이 뚜렷하므로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값으로 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충무공의 죽음 자체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상상 추측하여 새삼스레 자살이니, 위장사망이니, 은둔이니 하는 것은 백옥에 미하(아주 작은 티)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충무공의 거룩한 죽음에 오히려 모독이 될 뿐일 것이다.” 고 맺으며 근거 없는 논의를 차단하는 바람직하고 정리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참고할 일이다.

공이 순국한지 4년 뒤에 나서 부윤을 지낸 맹주서는 충무공을 조상한 장편 시에서 “본시 그 죽음 뜻이 있건만/뒷 사람이 그 뜻을 어찌 알리요” 라고 한탄하며 지극히 숭고한 이의 마음씀을 범부의 잣대로 왈가왈부함을 일찍 경계하였다. 그렇다. 다만 문사들의 시문이 의혹을 구성할 뿐 조선의 정사가 ‘전사’ 로 기록하고 있음을 유의할 일이다.

이순신은 그의 시문에서 그리던 ‘전쟁 뒤의 평화로운 전원생활’ 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 백성을 침탈한 왜놈은 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로 대미를 완성하고자 몸을 돌보지 않고 용전분투 하시다가 적의 집중사격으로 장렬히 전사하신 것이다.

이순신 전사의 날인 12월 16일을 맞을 때 마다 충무공 이순신의, 남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지극히 숭고한 “이타(利他)의 정신” 을 되새겨 볼 일이다.